

# “시간 허비할 수 없다”...80%대 지지도 믿고 정면돌파

**文대통령 김상조 전격임명 배경**  
**“국민 눈높이 맞는 검증 통과했다”**  
**2野·국민의당 반발 ‘은도차’**  
**강경화 임명 여부가 정국 변곡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격 임명함에 따라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추가경정예산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전격 임명 배경=애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다음주 중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갑자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날 임명 소식을 전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졸졸보다 정적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검증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밝혔다. 정무회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임명을 배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질박성도 전격 임명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급속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 논란에도 80% 전후에 달하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와 김 후보자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지도 임명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야당의 반발=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유감스러움을 넘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그런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 추경이든 정부조직법이든 얼마든지 논의해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3野 “일자리 추경 반대” 공동대응 합의

**정부조직법도 연계 시사...與 비상**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하면서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중점 현안들이 6월 임시국회를 넘지 못하고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권은 ‘일자리 추경’의 처리 시한을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2일로 잡고 있지만, 야 3당이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경’ 처리를 연계하면서 순조로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 영구적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3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 등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질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상응하는 논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비판 대열에 함께했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애초 김 후보자에 대한 당내 입장이 모아지지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박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원내 1, 2당의 오만과 이적이 충돌하며 임명강행을 초래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자유한국당까지도 겨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생과 국정 공백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고뇌를 국민은 동의할 것”이라며 “국정공백 장기화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평가했다.

◇전망=야당이 반발이 거센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처리 절차 등은 여야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최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까지 강행할 경우 야당은 국회 일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애초 두 후보자를 동시에 임명할 것이라 관측과 달리 김 후보자만 임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보다는 야당의 반발 정도가 약한 김 후보자를 먼저 임명하고 설득 노력을 더한 후에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추경안 처리와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강 후보자 카드는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미연합사 찾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오른쪽)과 임호영 부사령관(왼쪽)의 인내를 받으며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인사청문 앞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광주일보 칼럼 화제

**“나도 다운계약·음주운전”**  
**흥결 털어 놓으며 고해성사**  
**피아니스트 조성진 키워낸**  
**부인 박숙련 순천대 교수도 눈길**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광주일보 필진으로 참여하면서 쓴 칼럼이 화제다.

안 후보자는 2014년 7월25일자 광주일보 칼럼 ‘안경환의 법과 문화’에서 ‘인사청문회의 허와 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 칼럼에서 안 후보자는 과거의 흥결을 털어놓으며 ‘고해성사’를 했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 등 공직자들이 줄줄이 인사청문회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던 때다. 안 후보자는 칼럼에서 “2006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임명되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으나 은밀한 검증과정을 통해 적지 않은 질문을 받았다”면서 “만약 그때 내가 정식 인사청문회를 거쳤더라면 어땠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역 기피, 위장 전입, 그런 거야 없지만 다른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다”라며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논문 자기 표절과 중복 게재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의 자신 역시 학계의 관행에서 크게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냈다. 또 음주 운전에 대해서도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안경환의 ‘법과 문화’** 인사청문회의 허와 실

“최근에 정부의 ‘제2기 내각’이 출범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고려 중인 최순실과 유시민이 두 장관 후보자가 낙마함으로써 벌어졌다. 그중에서도 애초 내각을 꾸릴 예정이었던 안경환은 ‘법과 문화’ 칼럼을 통해 ‘고해성사’를 했다. 그는 “만약 그때 내가 정식 인사청문회를 거쳤더라면 어땠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역 기피, 위장 전입, 그런 거야 없지만 다른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다”라며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안경환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나도 다운계약·음주운전” 흥결을 털어놓으며 고해성사를 했다. 그는 “만약 그때 내가 정식 인사청문회를 거쳤더라면 어땠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역 기피, 위장 전입, 그런 거야 없지만 다른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다”라며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안 후보자는 그러나 높아진 인사 검증 요구는 시대의 요구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황회 정승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청문회 강도를 약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절대 옳지 않은 일로 검증 기준이 높아진 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의 부인도 눈길을 끈다. 그의 부인은 피아니스트 조성진(23)을 키워낸 피아니스트 박숙련(55) 순천대 교수다. 지난 2015년 한국폴란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조성진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박교수를 만났고 2012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날 때까지 줄곧 그녀에게 지도를 받았다. 우송 당시 전화 인터뷰에서 박교수는 “소명 콩쿠르는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꿈꾸는 무대로 성인의 우승은 한국 피아노 역사를 새로 쓴 셈”이라며 “그의 연주엔 우아함과 고상함이 있으며 연주가 굉장히 깊이 있고 작곡가의 의도도 잘 살린다”고 평했다. 서울대와 미국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수학한 박씨는 미국 노아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를 거쳐 12년전부터 순천대 피아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ㄲ~우~욱~

##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 특가

**선박+항공**  
**3일 특큐슈 298,000원** 부터  
**4일 특큐슈·야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특큐슈 3일 498,000원** 부터  
**큐슈·야마구치 3일 598,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특큐슈 4일 598,000원** 부터  
**큐슈·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 부터

포함 사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임,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30,000/인)

## 다낭

한국국적 티웨이항공

아름다운 해변의 백사장과 밤하늘의 낭만이 춤추는 베트남 다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친 美親 초!! 특가**

**5일 399,000원** 부터  
**6일 399,000원** 부터

부산 출/도착

상품 특 전 : 투박강투어(목공예마을+도자기마을), ICE 커피 한잔, 일대 관광, 발 마사지 60분(당 1명), 노니비누 1개/인  
 포함 사항 :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 차량, 일일차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여행자보험, 스타 마사사 1시간  
 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 경비(\$50/인·5일, \$60/인·6일) ※연인, 아동 중일 한자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2억원 영입보장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 A 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대표이사 최금환

NAVER [조이투어](http://www.joytour.kr)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 홍도&흑산도 1박2일

**245,000원** 부터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피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보통 기입(예약사항) : 1인원, 국내상품 5인원, 관광진흥법(기타), 공회 및 부도 이영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 지역 ● 참가 요건은 한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입보장보험 가입 / 여행제 2인 1실 ● 예약시 계약서(약관)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 경비업(관광, 기사/가이드) 별사, 선착순, 각각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황에 따라 다름